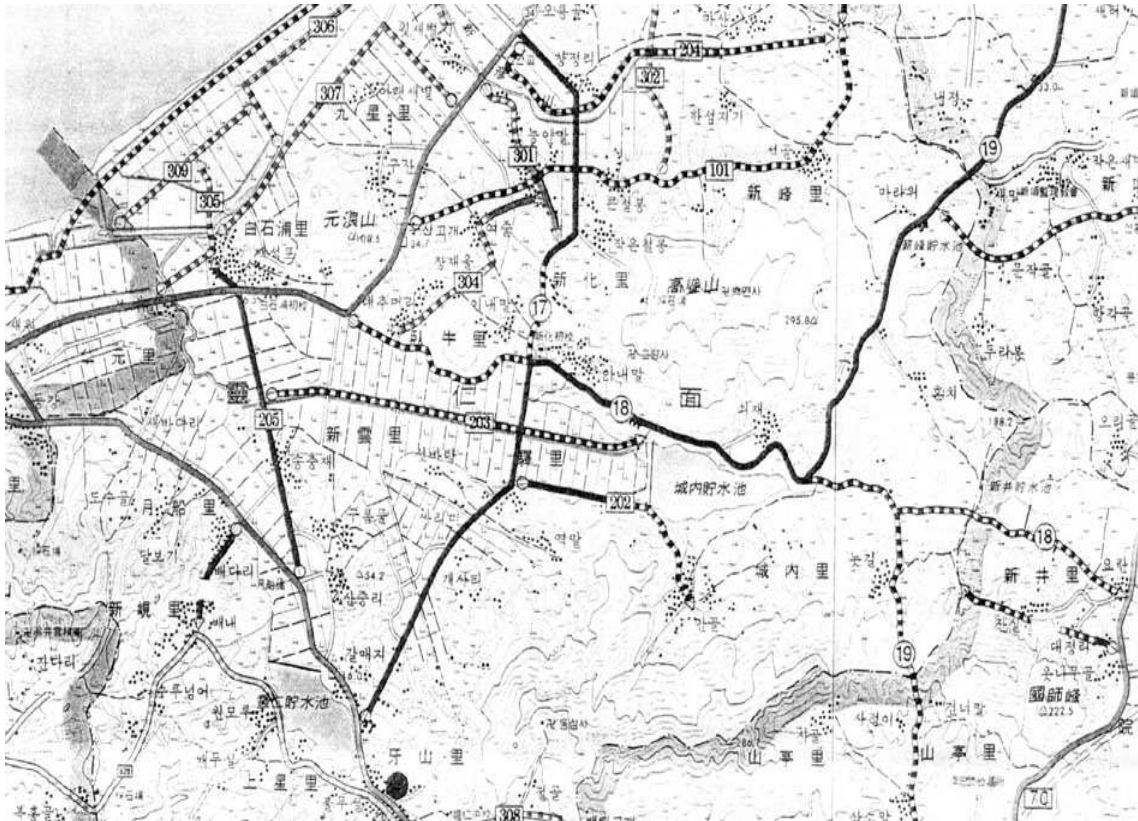


신화리·新化里

영인면의 한 마을로 세 개의 리로 구성되어 있다. 신화리를 자연 부락별로 나누면 신화1리는 아내말, 신화2리는 아래말, 장항리, 새말, 장재울, 신화3리는 여술로 구분된다. 마을의 호구수는 총 158호로 인구수는 총 544명이 살고있다. 신화리는 아산군 이북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신대리, 안화리, 장항리, 여사동을 병합하여 신대와 안화의 이름을 따서 신화리라 하여 영인면에 편입되었다.

<신화리 위치도>



⊗ 아내말, 아래말, 장항리, 새말, 장재울, 여술

신화 1리 마을은 신화초등학교가 있는 마을로서 교촌이라고도 불리우며 아내말이라고도 불리었다. 신화 2리 마을은 아래말, 장항리, 새말, 장재울 마을로 구성되어 있고 동쪽으로는 고용산이 경계를 이루고 있다. 신화3리 마을은 여술이라고 하는데 뒷산의 모양이 여우와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조사당시 신화리 마을 관련 사진>



1) 위치

신화리는 면소재지에서 북동쪽 4~5km 지점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고룡산이 경계를 이루고 있다.

2) 현황

신화리의 인구분포를 보면 1리인 아내말이 제일 많은 265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생업에서도 평균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인구분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남자	여자
아내말	265명	139명	126명
장재울	155명	82명	73명
여술	124명	67명	57명

- 생업

구분 마을명	계	농업	기타
아내말	100%	77%	23%
장재울	100%	69%	31%
여술	100%	79%	21%

농경지현황을 보면 아내말이 91ha로 농경지 면적이 제일 넓으며 장재울이 54ha, 여술이 53ha이다.

- 농경지 현황

구 분 마을명	계	논	밭
아내말	91ha	68ha	23ha
장재울	54ha	36ha	18ha
여술	53ha	40ha	13ha

- 농기계보유현황

구 분 마을명	경운기	트랙터	양수기	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아내말	36대	11대	1대	3대	11대	21대
장재울	25대	1대		4대	6대	11대
여술	13대	2대		2대	10대	11대

- 문화시설

구 분 마을명	마을회관	앰 프	사물놀이악기	방송시설
아내말	1채	1대	1조	
장재울	1채	1대	1조	
여술	1채	1대	1조	

- 연령분포

구 분 마을명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0이상
아내말	28	24	35	22	32	33	45	15	6
장재울	10	20	8	10	15	25	23	8	5
여술	9	12	19	9	13	20	15	10	3

성씨별 분포에서는 아내말이 김씨가 17%로 많이 살고 장재울은 이씨가 18%, 여술은 김씨가 34%로 많이 살고 있다.

- 성씨별 분포

구 분 마을명	김씨	이씨	강씨	원씨	박씨	최씨	기타
아내말	17%	6%	8%		3%	4%	62%
장재울	16%	18%			3%	4%	
여술	34%	5%	7%	11%	10%	7%	26%

- 학생분포

구 분 마을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아내말	13	7	7	5

장재울	8	8	8	3
여술	6	2	3	2

- 최고령자

아내말 마을은 93세의 장봉이씨이며
장재울 마을은 94세 박상분 할머니이시고
여술마을은 91세 김상현 할아버지이시다.

- 호당 평균소득

아내말 마을 년/1,400만원
장재울마을 년/600만원
여술마을 년/1,200만원

3) 자연 경관

동쪽으로 고용산을 경계로 이루고 있으며 기름진 들에 전답이 고루 분포된 농촌마을이다.

4) 마을 변천 과정

본래 아산군 이북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신대리, 안화리, 여사동을 병합하여 신대와 안화의 이름을 따서 신화리라 하여 영인면에 편입되었다.

5) 입향

신화 1리는 경주최씨, 수성최씨 등이 약 150여년을 살았으며 또, 온양정씨도 살았다. 그러나 현재는 1집으로 각성이 살고 있으며, 신화2리는 원주 김씨가 살다 100여년전에 떠나고 지금은 각성촌으로 전주이씨가 많다. 신화3리는 경주김씨가 약 2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강씨, 김씨, 박씨등 여러성이 사는 각성촌이다.

6) 지 명

아래말 : 고용산 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

여 술 : 장재울 북쪽에 있는 마을. 뒷산의 모양이 여우와 같다함.

금의들 : 장재울 앞에 있는 들.

안에 말 : 안화리(安化里)라고도 하며, 고용산 서쪽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여술(如術) 장재울 북쪽에 있는 마을, 뒷산의 모양이 여우와 같다고 한다.

장재울 : 신대리(新垔里)라고도 하며, 아래말 서쪽에 있는 마을, 옛날 큰부자가 새를 터로 잡아 살았으며, 오래도록 마을 이름이 내려간다는 뜻으로, 마을이 장수한다는 뜻으로 전해지고 있다.

새 말 : 신화초등학교가 있는 마을, 교촌(校村)이라고도 불린다.

각골 들 : 학교앞에 있는 들

유산넘어 : 고용산과 성내저수지 사이로 신화리와 성내리 경계에 있는 들.

뒷골 들 : 신봉리 소재지의 들, 신화 1구의 뒤편에 있는 들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

삼쟁이 들 : 수로너머라고도 하며 역리에서 성내2구 가는 왼편에 있는 들

광침이 들 : 구역말 이라고도 하며 안에말에서 뒷골로 가는 마을 서편에 있다.

금의 방죽 : 와우리 앞에서 신화리 부근까지의 방죽(겨울철에만 물을 가두어둠)

쪽다리 방죽 : 장재울에서 여말 가는 곳에 있던 작은 방죽.

여술 방죽 : 신화3구(여술)앞에 있던 방죽.

유통이 방죽 : 삼쟁이들에 있던 방죽, 지금의 한성 앞에 있었다.

장재감정(長在甘井) : 신화리 379-3번지 마을 앞에 있는 샘으로 지금도 마을 사람 십여명 이상이 빨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크며 샘 옆에는 연대를 알 수 없는 묵은 향나무가 있다. 마을 노인들의 전하는 말에 의하면, 90여년 전에도 나무 크기가 현재와 비슷하였다 하는 것으

로 보아 100여년은 훨씬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우물은 일제 강정기인 1931년까지만 해도 항상 단물이 나와 마르지 않는 샘. 즉 장재감정(長在甘井)이라하여 온마을에서 해마다 용제(龍祭)를 올리었다 한다. 온 마을 사람들이 이 샘물을 길어다 먹었으며, 날씨가 가물 때에는 신화리 일대는 물론 역리, 와우리, 백석포리 주민까지 와서 이샘물을 길어다 식수로 사용하였다 하니 이 샘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준 생명수였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 후 각자 집에서 우물을 파자 샘의 역할 또한 식수에서 빨래하는 샘으로 변화하였으며, 한 때 땅 입자에 의해 철거 매립될 뻔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현재 수리하여 보존하고 있다.

жат 샘 : 신화1구에 있으며 마을 공동 우물이었다.

웃 샘 : 신화1구에서 고용사 가는 곳에 있다.

농 막 : 경지 정리 할 때 일하다 쉬라고 지었다.

망축 거리 : 유래는 알수 없으나 현재 학교 앞 사거리 일대를 칭하여 망축거리하 부른다.

성황당 고개 : 신화2리에서 신봉1리로 넘어가는 고개로서 60년대 까지만 해도 숲이 우거지고 성황당 나무가 있었으며, 주민들이 복을 비는 의미로 돌을 던져 놓곤하여 성황당 고개로 불리었으나 현재는 철봉고개라 개명되어 옛 지명은 잊혀져 가고 있다.

진마루 고개 : 신화1구에서 역말로 가는 곳에 있는 작은 고개.

구역말 고개 : 신화1구에서 뒷골로 넘어가는 고개.

유산넘이 고개 : 신화1구에서 성내리 가는 저수지 부근의 고개

여술 고개 : 신화2구에서 3구로가는 고개

장재울 고개 : 장재울에서 와우리로 가는 고개

버드릿들 : 아래말 동쪽에 있는 들

삼정익골 : 제빛들 아래에 있는 들

제빛들 : 아래말 앞에 있는 들

아래말 방죽 : 아래말에 있는 방죽, 1917년에 시설함.

북쪽수로 : 성내 저수지 의 수로 영인농조의 제 1수로로 역리에 있는 제 2수로의 북쪽이됨.

고용사지 : 조선시대의 사지로서 초석으로 보이는 돌이 남아있다.

7) 전설

덕대 골 : 신화리 산 37-5일대를 말하며 덕대라 함은 사람이 죽었을 때 땅에 묻기전에 나무들을 걸쳐놓고 그 위에 시신을 놔두었다가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난 뒤 묻었는데, 이장례법이 있던 예전에 덕대를 하던 곳으로 덕대를 실시한 시기는 알수 없으나 옛날에 사람이 죽어 다시 살아날지 모른다는 희망에서 행하여졌던 장례 절차의 관행이었다 한다.

복어 눈 : 신화리 401~420번지 일대를 말하며, 옛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던 시절 날씨가 가물어 벼를 심지 못하고 시름만 더해가던 선비 한사람이 장에 갔다 오는데 손에는 복어포 한 축이 들려 있었다. 배가 몹시 고팠던 농부는 그 선비를 쫓아가 "저- 선비님 이 다음에 갓아 드릴테니 그 복어 좀 몇 마리 꾸어 먹을 수 없는지요."라고 사정을 하였으나 선비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꾸어 주어도 받을 길이 없는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다급해진 농부는 "저 선비님 이 눈을 드릴테니 그 복어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청하였다. 선비는 마지못한 듯 복어와 눈을 바꾸어 그 후부터 복어를 주고 산 눈이라 하여 복어눈·복개눈이라 불러 전해온다.

쇠재산 : 신화리에 쇠재산이 있다. 이산이 쇠재산이라고 불리게 된 전설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옛날 어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남편이 눈에 나가 일을 하다가 한 마리의 큰 구렁이를 보게 되었다. 남편은 그 뱀을 보자마자 세 토막으로 잘라 죽였다. 그리고 세 토막을 나란히 땅속에 묻어 주었다. 남편은 아무 거리낌없이 나날을 보냈다. 그런데 얼마 안되어 그의 아내가 갑자기 아이를 갖게 되었다. 결혼을 했는데도 몇 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음을 걱정하였는데 아이를 갖게 되어 너무나 기뻐 어쩔줄을 몰라 하였다. 남편도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니 너무나 기뻐하였다. 해산일이 되어 그의 아내는 아이를 낳게 되었다. 두 부부는 아이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였다. 남 부럽지 않게 살아가던 이들 부부는 아들의 장래에 대해 의논해 보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 집에 이상한 일이 생기

게되었다. 난 아이가 백일이 되자 그의 아내는 또 아이를 갖게 된 것이다. 아내는 한편으로 불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였다. 남편은 아마 이아이가 장군이 될 모양이야 하며 기뻐했다. 부인은 불안감과 초조함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였다. 그래서 아내는 며칠이 지나자 모두 다 잊게 되었다. 남편은 날마다 너무도 행복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일을 하였다. 몇 달이 지나 아이가 태어났다. 아이가 태어난 지 백일이되어 또하나의 아이를 갖게 되었다. 아내는 너무 두려워 매일밤 기도를 하며 제발 아무일도 없게 해달라고 천지신명께 빌었다. 세월이 흘러 어느날 이 이야기저 이야기 끝에 아버지는 옛날 자신이 눈에서뱀을 죽인 일을 이야기 해주었다. 그러자 마자 세아들은 다 죽어서 세도막으로 잘린 뱀으로 변하였다. 부부는 너무 놀라 기절할 지경이었다. 아내는 너무 슬피하며 집밖으로 뛰어나가 슬피 울었다. 마침 지나가던 스님이 그 연유를 물었더니 아내는 이제까지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였다. 그러자 스님은 아무 말없이 고개를 숙이더니 부인에게 하는말이 "그 아들은 남편이 묻은 뱀이 한을 품고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요, 그러니 아이들의 한을 풀어주소. 만일 그렇지 않으면 당신네 부부의 목숨이 위험하오."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부인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애원하며 매달렸다. 스님은 한숨을 내쉬며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아들은 뱀으로 되었으니 그 뱀을 나란히 이어서 널 속에 잘넣어 동네 뒷산에 붙고 보름달이 뜨면 그들을 위해 제를 올리시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올 때 절대로 뒤를 돌아다 보지 마시오. 만일 뒤를 돌아보면 당신은 소로 변하고 말것시오." 하고 말하였다. 아내는 명심하여 스님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러나 자식들이 애달프게 부르는 소리에 참지 못하고 뒤를 바라보는 순간 아내는 소가 되어 자식들의 묘에 끌려 들어갔다. 그 후 그 묘에는 봄이 되어도 새 잎이 나오지 않고 누런 풀잎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되었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모진 비바람에 깎여서 묘의 자취는 간곳이 없게 되었다.

8) 전통놀이 및 집단행사

이 마을에도 부녀회가 있어 각 행사를 주관하고 있으며, 부녀회뿐만아니라 마을 청년회에서도 많은 행사를 이끌어 마을의 친목도모와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그리고 대동계를 운영하고 있다.

9) 특별히 소개할만한 인물

이마을 에는 특별히 소개할만한 인물이 조사 되지 않았다.

10) 종교단체

나사렛 성결 신화교회 영인면 신화1리 목사 남상훈, 종파 : 성결교

고룡사 영인면 신화1리 주지 박자인, 종파 : 화엄종단 화엄학

용수사 영인면 신화1리 주지 법성월 조행순, 종파 : 총화종

11) 공장현황

국제기공사 대표 김진국 신화리 310-1번지 생산품목 : 약탕기

보배공영 대표 김승보 신화리 6-1외2 생산품목 : 중기 발생기

신진스틸(주) 대표 이정희 신화 237-1번지 생산품목 : 목재 및 석재 유사 경화 물질

12) 마을의 특성

이 마을은 평범한 농촌 마을 가운데 하나로서 마을이 깨끗하고 인심 좋고 물 좋은 마을이다.